

“참회 통한 쇄신은 여야 모두 배워야 할 가치”

주호영 국회의원(한나라당·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한나라당·대구 수성을)은 대표적 불자 국회의원이다.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임장관에 임명돼 불교계와 정부의 소통을 이끌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전통사찰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이 주 의원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그는 불교계를 위해 일해 온 숨은 일꾼이다.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직과 대화를 중시하는 주호영 의원을 만났다. 주 의원은 최근의 안철수 열풍을 정당정치의 위기로 진단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최근 언론매체마다 연일 안철수 신당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바람'을 일으키며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호영 의원은 '안철수 열풍'을 기존 정당들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았다. 주 의원은 "한마디로 정치 불신에 의한 정당정치의 위기다. 기존 정당들이 과거 틀에 갇혀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 못한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본다"며 "안철수 바람에 나타난 국민들의 준엄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우리 정치문화가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화와 다수결에 따른 민주주의의 원칙이 사라지고 물리적 충돌과 입법지연이 난무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설 직후 인재 영입 가시화 예상

변화와 쇄신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특히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재영입에 있어 도덕성, 전문성,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지역·연령·성비율 등을 안내한다는 큰 원칙이 정해져 있다. 한나라당의 인재 영입은 내년 설 직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책임감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재를 최대한 많이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의원은 민주적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재 영입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의회 폭력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주호영 의원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누구를 영입해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 인재영입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절차 확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와 지속적 소통

주호영 의원은 2010년 8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찬성 속에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자로서 누구보다 불교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 의원이 꾸준히 소통한 결과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비서실장 활동부터 현재까지 여러 스님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으며 불교계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가 '자연공원법' 개정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 발의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통 사찰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중복 규제가 시달렸다. 1976년 법 제정 당시 산림보존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스님들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은 국립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들의 어려운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산림이 울창한 부분과 현재 사찰 경내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했다. 또한 실제 수행과 신생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공원문화역사지구로 지정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원역사문화지구 입장료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꾸준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능력은 특임장관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주 의원은 초대 특임장관을 맞아 업무의 기틀을 다지고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특임장관실 개정 전 17.7%에 불과했던 정부입법 통과율은 개정 후 69.6%(2010년 5월말 기준)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부처님 가르침 정치활동 큰 힘

주호영 의원은 어린 시절 집 근처에 있던 동림사를 놀이터 삼아 지냈다. 당시 동림사에 있던 정오 스님은 주 의원이 (반야심경)을 한 구절 외우면 과자를 주기도 했다. 주 의원은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갔다.

주호영 의원은 결사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의 5대 결사는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참회를 간증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일이라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 불교의 참회를 통한 쇄신은 여야 모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가치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종교는 '무교' 또는 '기전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이 되기 십상이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신 있게 종교를 밝히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종교를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때도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잠시라도 남을 속이는 것은 오게 중 하나인 '불망어(不忘語)'를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속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담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치에 임하는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됩니다. 육바라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치인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주 의원은 인육바라밀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지계바라밀은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를 키워 준다고 밝혔다. 정진바라밀은 국민을 위해 한시라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힘이 되고, 선정바라밀에 의한 마음 정화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맑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지혜바라밀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지혜를 길러줘 정치 및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된다고 믿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종교 거짓으로 밝히는 정치가 많지만

'불망어' 제 지키려 당당히 불자라고 밝혀

자연공원법 개정 등 불교 발전위한 노력 경주

MB정부 특임장관 맡아 불교계-정부 이어

희망을 갖고 꿈을 위해 도전하라

주호영 의원은 평소 '많이 읽고[多讀], 많이 쓰고[多作], 많이 생각하는 것[多商量]'을 자주 언급한다. 아이디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면 기존의 내용이라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는 평소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주 의원 스스로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이유가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2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제17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초대 특임장관 등을 지냈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교통신용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음의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MAUM DIARY 2012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가기 위한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
한 달 동안 생활의 지침이 될
대행 스님의 법어가 실려 있어요!

아쿠아 블루, 오렌지 브라운, 라임 그린 세 가지 컬러!

130x170mm
정가: 12,000원

『숲속가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만드는 출판기금으로 쓰입니다.

YEARLY PLAN
한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MONTHLY PLAN
육바라밀을 지향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갑니다.

DAILY PLAN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웁시다.

파스텔톤의 화사한 수채 그림과 손글씨로 쓴 법어 디자인!

뒷표지에는 큼직한 포켓이 달려 있어 메모지 등 수납 공간으로 쓰기 좋아요!

판매처
현불상 : 02-2004-8215
템플스테이 서경, 교보, 영풍,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외 일반 서점

구입 시 입금 계좌번호
농협 : 211813-52-006904
국민은행 : 222-2106-08997
예금주 : 이현정

숲속가게™ supsockage
한마음저널 공식블로그(한그루의 숲)
blog.daum.net/hanjournal/355
구입 문의 : 010-8675-3108